

《生金閣》의 눈보라 치는 주막 : 소비하기 다민족 사회의 은유*

李 知 恩**

〈目 次〉

- | | |
|-----------------------|------------------|
| I. 서론 | IV. 눈보라 치는 주막에서의 |
| II. 소비하기의 은유로서의 눈보라 | 조우가 불러온 비극 |
| III. 다민족 사회의 은유로서의 주막 | V. 결론 |

〈중문초록〉

本研究將13世紀中葉以後席卷歐亞大陸的巨集觀環境變動「小冰期」與元代雜劇作家武漢臣的鬼戲《生金閣》交織在一起，旨在闡明當時漢人知識分子所面臨的時代痛苦與抵抗美學。在蒙古統治體制嚴苛的政治審查下，直接批判現實是不可能的，因此作家以「風雪」這一普遍的氣象現象和「酒店」這一微觀空間為媒介，精細地塑造了雙重的歷史災難。其一，作品中的「風雪」不僅是單純的季節背景描寫，更是13至14世紀小冰期環境史的表征，以及促使北方民族南下的巨集觀動因的文學隱喻。與在嚴寒中經歷身體危機的漢人郭成不同，在雪中享受狩獵與酸酒的龐衙內一行人，表征了統治階層的生態適應力與野蠻活力。其二，因暴雪而封閉的酒館是蒙古人、色目人、漢人雜居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2023S1A5B5A16076530).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교수.

의元代多元民族社會의縮影, 這裡成了漢人爲求生存不得不接受異質文化、與統治階層排他性傲慢發生衝突的殖民化舞台。其三, 家傳寶物《生金閣》의被強奪、郭成化爲無頭厲鬼, 以及妻子因之而遭的悲劇, 形象化地表現了在科舉制廢除與全方位掠奪中儒學經綸被徹底瓦解的漢人知識分子群體的集體創傷。歸根結底, 《生金閣》並非僅是一部涉及超自然存在的單純鬼神劇, 而是環境災難與異族掠奪交織在一起的元代社會生動控訴書。作家通過將自然物置換爲感官尺度的迂迴批判戰略, 將飽受踐踏的漢人之痛召喚至舞台之上, 深刻銘刻了遺民的失落感與氣候-政治暴力的實相。

I. 서론

13세기 중엽 지구 북반구에는 이상기후가 시작되었다. 유럽은 1250년 중세온난기¹⁾가 종료됨에 따라 기온이 낮아졌고, 13세기에 시작되어 17~19세기까지 이어진 소빙하기는 평균기온을 하락시키며 반복적인 냉해와 강설, 농업 생산력 저하를 야기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럽보다 앞서 이러한 기후학적 변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후변동은 단순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인류 사회의 대규모 이동과 정치·경제·사회적 구조 재편을 동반하였다. 특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북방 유목민의 남하와 이에 따른 中原 침략, 그리고 金·宋의 연이은 붕괴는 當代 민중에게 물리적 생존의 위협이자 깊은 심리적 공포로 다가왔다. 몽골인의 남하와 함께 中原으로 유입된 다양한 色目人은 元代 四等人制라는 위계적 다민족 세계를 구축하였다. 몽골인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色目人이 그 뒤를 이은 구조 속

1) 중세온난기는 대략 950~1250년의 기간을 말한다. 북대서양 난류로 인해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온난기가 유지되었던 시기로, 바이킹이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시기(Vinland sagas)도 바로 이때이다. 때문에 온난기라는 표현보다는 이상기후라는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학계에 받아들여져, 요즘에는 중세 기후이상기(MCA, Medieval Climate Anomaly)라 부른다.

에서, 漢人과 南人은 하위 및 최하위 계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신분적 위계는 漢人과 南人의 삶에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민족 지배 체제 속에서 새로운 생존 양식을 강구해야 하는 구조적 패러다임을 요구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元代 鬼神劇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주로 문학적 의의나 역사적 배경 및 인물의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왔다. 그러나 鬼神劇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작품 속에 투영된 추위와 폭설 및 눈보라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독특한 징후를 새롭게 포착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사적 맥락에서 작품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元代 鬼神劇 가운데 이러한 기후위기의 현상을 작품에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武漢臣²⁾의 《生金閣》이 있다. 특히 작가가 중세난간의 종료와 소비하기의 시작 시점인 1251년에 생존했다는 기록과 텍스트 내부에 흑독한 눈보라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기후위기의 양상을 포착해 낸 귀중한 문화적 징후임을 보여준다. 작가는 소비하기라는 거시적인 환경사의 변동과 몽골 제국 속 서로 다른 민족이 혼재하는 다민족적 세계의 양상을 ‘눈보라 치는 주막’이라는 미시적 공간 속에 집약적으로 투영하였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공간적 설정과 시대적 맥락의 유기적 결합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2) 山東 濟南 출신으로, 生卒年과 字號는 상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鍾嗣成이 지은《錄鬼簿》에서 그를 ‘윗 세대 가운데 작고한 명공재인(前輩已死名公才人)’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金代 혹은 元代 前期의 雜劇 작가로 추정할 수 있다. 莊一拂의 《古典戲曲存目彙考》에 따르면 대략 元 憲宗 元年(1251년) 전 후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賈仲明의 〈挽詞〉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泉城(濟南)에 은거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던 ‘書會才人(극작가 겸 예능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생 10여 종(일설에는 12종)의 雜劇을 창작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은 《散家財天賜老生兒》, 《包待制智賺生金閣》, 《李素蘭風月玉壺春》 3종이다.

II. 소비하기의 은유로서의 눈보라

1. 소비하기의 도래

13세기 중엽 이후 유라시아 대륙은 지구사적 차원의 거대한 환경 변동을 맞이하였다. 수 세기 동안 인류의 농업 생산력 증대와 문명적 팽창을 지탱해 주었던 중세 온난기(950~1250)의 안정된 기후 체제가 끝나고, 지구 북반구를 중심으로 평균기온의 급격한 하강과 극심한 기상이변을 동반한 소비하기가 도래한 것이다. 기후학과 환경사 연구에서 소비하기는 단순한 계절적 변동의 범주를 넘어, 대기 순환의 변조와 태양 복사량의 감소, 화산 활동의 빈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구 생태계의 질서를 재편한 거시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13세기 울프 태양 극소기(Wolf Solar Minimum, 1282~1342)³⁾의 진입과 함께 시작된 기상이변은 중세적 사회생태 체제 전반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브루스 캠벨(Bruce Campbell)⁴⁾과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⁵⁾의

3) 울프 태양 극소기는 태양 활동이 현저히 약화되어 지구로 유입되는 복사량이 감소하고 북반구의 기온 하강을 유발한 대표적인 태양 극소기 중 하나이다. 기후사 및 환경사 연구에서는 대략 1282년부터 1342년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평가되며, 중세온난기의 안정된 기후 체제를 종결시키고 전 지구적인 소비하기로의 진입을 알리는 거시적 환경 변동의 기점이 되었다.

4) 브루스 캠벨은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중엽까지 지속된 중세 전성기의 변영을 온난한 기후 조건인 ‘중세 온난기(MCA)’의 산물로 규정하며, 인구 증가와 농업·상업적 발전이 이 안정된 환경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본다. 또한 13세기 후반 ‘울프 태양 극소기’의 진입과 함께 기온하락과 기후 불안정이 사회·경제 체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한 ‘대전환(The Great Transition)’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캠벨은 이 대전환을 기후 불안정과 전쟁·교역 단절의 제1단계, 기후 악화와 전염병이 결합한 복합 위기의 제2단계, 그리고 중세 사회생태 체제의 구조적 붕괴인 제3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는 13세기 후반부터 기후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상업 활동의 위축, 빈번한 전쟁, 교역로의 단절 등이 발생한 시기이다. 이를 작자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 1251년 전후에 생존했던 작자 武漢臣은 이 1단계를 관통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武漢臣을 비롯한 元代 작

연구는 13세기 이미 기후 불안정이 일상화되었음을 증명한다. 한랭화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농업 생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흉작, 기근을 연쇄적으로 유발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막론하고 농경지의 생태적 수용력이 한계에 달했으며, 이는 인구 부양력의 감소와 사회적 불안정으로 직결되었다. 특히 아시아 대륙의 북방 초원 지대에서 발생한 기온 하강은 전통적인 유목 생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초지 면적의 축소와 더불어 겨울철 혹한으로 가축이 대규모로 동사하는 조드(Zud)⁶⁾ 현상이 빈발하자, 북방 유목민들은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었다. 목초지와 자원의 고갈은 초지 내부의 생존 경쟁을 격화시켰고, 이는 거대한 군

가들의 생물 연대가 문헌상 상실된 상황에서, 캄벨이 강조한 기후학적 전환의 궤적은 텍스트 내부의 혹한과 눈보라 같은 계절적 징후가 단순한 배경을 넘어 작가가 처했던 환경적·역사적 실존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시공간적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티모시 브룩은 元代의 이상기후를 설명하기 위하여 ‘늪(sloughs)’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그는 3차례의 기후위기를 ‘至元 연간의 늪(1268~1272)’, ‘泰定 연간의 늪(1324~1330)’, ‘至正 연간의 늪(1343~1346)’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元은 건국자인 쿠빌라이 칸(世祖, 재위 1260~1294)의 치세에 이미 환경적 불안정기에 접어들었다. 1270년대 후반에서 1280년대는 태양 활동이 약화되어 중세온난기를 유지하던 대기 순환 패턴이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로, 울프 태양 극소기의 전초기에 해당한다. 브룩은 1281년 황후 차브이(Chabui) 사망 이후 쿠빌라이 칸 통치기에 발생한 급격한 혼란 역시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후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1251년 전후에 생존했다고 알려진 작자 武漢臣은 울프 태양 극소기의 혹한기에도 생존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작품의 작자인 武漢臣의 생졸년은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작품 속에 생생하게 묘사된 기상이변과 극한의 계절감은 작자가 실제 체감했던 시대적 환경을 강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텍스트 내부에 투영된 기후 양상은 작자의 생활 배경과 구체적인 활동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 6) 조드(Zud)란 몽골 초원 지대에서 겨울철 이상 저온과 폭설로 인해 가축이 동사하거나 아사하는 복합적 한파 재해를 일컫는 말로, 유목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적 위기 요인이다. 당대 민중들은 거대한 재앙을 몰고 북방에서 내려온 몽골 유목민들을 혹독한 한파와 폭설을 대변하는 조드 그 자체와 동일시하였다.

사적 팽창과 남하를 촉발하는 생태적 기동력이 되었다.

이렇듯 13세기 소빙하기와 극심한 자연재해는 몽골족을 비롯한 유목민을 중원으로 이끈 거시적 동인이었다. 혹독한 한파와 가축의 폐사를 피하고자 시작된 이들의 생존을 위한 남하는, 결과적으로 當代 漢人들에게 기후적 공포와 정치적 파멸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金과 宋의 붕괴 및 元의 건립이라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재편은 표면적으로 군사적 충돌의 결과이나, 그 심층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 및 생존 공간의 이동이라는 거시적 환경 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當代 민중은 이러한 기후의 급변을 과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었기에, 혹독한 한파와 북방 이민족의 남하를 서로 다른 차원이 아닌 하나의 동일한 재난적 층위로 체화했다. 즉, 이들에게 추위와 폭설은 곧 북방 이민족의 침입과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이민족은 눈과 함께 도래한 타자이자 공포의 표상 그 자체였다. 결과적으로 작품 속 눈보라(風雪)는 기상이변과 북방 이민족의 침입이라는 거대한 재난을 하나의 감각적 층위로 직조해 낸 통합적 은유로 기능한다.

2. 눈보라 속에서 사냥을 즐기는 龐衙內

기후 악화로 인해 몽골고원에서 中原으로 남하한 몽골인들은 소빙하기의 전개로 인해 中原에서 자신이 떠난 곳과 유사한 기후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눈보라와 혹한은 낯선 위기라기보다는 본래의 거주 환경에 가까웠으며, 오히려 이들은 이 가혹한 기후를 기피하기보다 친숙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작품 속 龐衙內는 바로 이러한 생태적 성향을 체화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에게 눈보라는 수렵과 전투의 본능을 환기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외부로 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방아내: 오늘은 펄펄 온종일 눈이 내리는구나. 집안에 앉아 술을 마시려니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니야. 곧장 교외로 나가서 첫째로 사냥을

하고, 둘째로 설경을 구경하련다. 여봐라, 말린 육포, 잔칫상 펠대, 송골매와 보라매, 새 잡는 끈끈이 장대와 새총, 종아리에 문신을 새긴 건달들을 준비하고, 덤으로 말 몇 필에 안장을 너네히 얹어 교외로 사냥을 한바탕 다녀오자꾸나.7) (第1折)

衙内란 원래 唐宋代 관청이나 고위 관료의 자녀를 이르던 말이었으나, 元代에는 황제를 가까이에서 호위하며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다진 친위부대이자 특권 계층인 ‘케식(Keshing, Kešik, 怯薛)’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막강한 병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특권까지 향유하며 元代 지배층의 핵심 권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따라서 그가 衙内라는 직무를 맡았다는 사실은 곧 그가 황제의 호위부대에 소속된 몽골인임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四等人制의 최상위 등급을 점유한 몽골인 가운데서도 높은 지위를 점한 인물임을 드러낸다.8)

그가 눈보라 속에서 감행하는 사냥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몽골인들이 군사 훈련과 생계를 겸하여 겨울철에 행하던 대규모 수렵 활동인 네르게(Nerge, 대사냥)9)의 상징적 재현이다. 초원의 유목민들에게 네르게는 단순히 식량을 비축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유희의 차원을 넘어, 군사적 기율을 다지고 전투 능력을 배양하는 실질적인 전쟁 준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작품은 龐衙内가 눈보라 속에서 사냥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추위에 대한 강인한 내성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中原을 제압한 몽골 지배 세력의 실상을 포착해 낸다. 북방에서 남하해 中原의 지배자가 된 이들이 혹한의 추

7) 今日紛紛揚揚，下著這一天瑞雪。坐在家裏吃酒，可也悶倦；直至郊野外，一來打獵，二來就賞雪。下次小的每，安排些紅乾臘肉，春盛擔子，鵲兒小鷄，粘竿彈弓，花腿閑漢，多鞍幾匹從馬，郊外打獵走一遭去。

8) 이러한 특권적 지위로 인해 元雜劇 속에서 이들은 當代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갖은 악행을 일삼는 부정적 인물로 전형화되어 묘사되기도 하였다.

9) 몽골제국은 매년 겨울마다 대칸의 주도하에 ‘네르게’ 혹은 ‘아바(Aba)’라고 불리는 대규모 사냥을 조직했다. 이는 단순한 식량 확보를 넘어 실제 전쟁과 똑같이 수행되는 모의 포위섬멸전 훈련이었다.

위와 재난을 유희적 정복 활동으로 소비하는 모습은, 언제든 실전적 무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몽골 武人의 호전성을 환기한다. 이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으며 이민족의 폭력적 지배를 감내해야 했던 피지배 민중의 고통을 유희적으로 고발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이처럼 작품 속 눈보라는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희의 계기로 삼는 몽골 무인과 생존의 위기로 체감하는 漢人 문인 사이의 민족적 성향을 갈라놓는 경계적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이는 북방 이민족의 침입과 이들에 의한 폭력적 지배를 은유하는 핵심 표상으로 기능한다.

3. 눈보라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郭成

눈보라는 龐衙內에게 사냥의 본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는 반면, 주인공 郭成 부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기호이자 가혹한 단절로 다가온다. 작품 속 郭成의 고향은 ‘蒲州 河中府’로 설정되어 있다. 蒲州는 오늘날 山西省 永濟市 서쪽의 蒲州鎮에 해당하며, 唐代 이래 黃河 유역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이자 문화적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고향을 떠나 수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그가 마주하는 추위와 눈보라는 이러한 지리적 이동과 맞물려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극중의 배경은 包待制가 활동했던 北宋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작품은 작자가 생존하며 창작 활동을 영위했던 원대의 현실적 맥락, 즉 蒙元帝國의 지배 질서와 생태적 환경을 깊숙이 투영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속 수도는 단순히 北宋의 수도인 開封이 아니라 元의 수도 大都의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黃河 유역의 농경 지대인 河中府(위도 약 34.9°N)에서 출발하여 大都(위도 약 39.9°N)로 향하는 여정은 지리적으로 고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경의 도정이다. 특히 元대에 科擧制가 부활한 연도가 1315년(延祐 2년)이라는 사실을 대입해 볼 때, 郭成의 이동은 大都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 蒙元帝國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이었으며, 소빙하기가 몰아닥친 전 지구적 한랭화의 타격을 정면으로 체감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郭成은

이민족에게 익숙한 차갑고 척박한 북방으로 향할수록 가혹한 눈보라와 마주하며 굶주림과 추위라는 극한의 실존적 파괴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된다.

【油葫蘆】

곽 성: (唱) 난분분 숨을 뜯어 공중에 뿌린 듯,
우르르 마구 북을 때리는 듯한 바람이여,
으스스한 하늘을 보니 분을 모조리 흩어놓은 듯하고,
아득히 먼 길 가난한 친척 친구 하나 만나지 못하고,
급하게 찾아보지만 황폐한 마을에는 여관 하나 비치 않네.
몸에는 홑옷만 걸쳤고,
벋속에도 먹은 것이 없는데,
“책 속에 천 종의 곡식이 절로 난다”가 웬 말인가.

이유노: (云) 서방님, 이렇게 몸에 홑옷만 걸치고, 벋속은 굶주렸으니, 어찌 먼 줄을까요?

곽 성: (唱) 괜히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구나.¹⁰⁾ (第1折)

郭成이 수도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혹독한 상황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이민족이 할거하는 권력의 거점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지정학적·기후적 징후이다. 소비하기라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속에서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함의를 품고 있다.

우선 몽골 지배층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적 변화와 정복 활동 속에서 中原으로 진출한 후, 자신들의 신체적 적응력과 전통적 풍토에 부합하는 북방의 大都를 최종적인 정치적 중심지로 삼았다. 그러나 이 시기 북반구를 강타한 소비하기의 이상기온은 새로운 수도 大都의 추위를 증폭시켰다. 결국 이민족이 中原을 장악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郭成과 같은 漢人 지식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미관말직이나마 얻기 위해 눈보라 치는 북방의 수도

10) 【油葫蘆】亂紛紛扯絮擲綿空內排，疏刺刺風亂鼓，寒凜凜望長天一色粉妝鋪。遠迢迢遇不著個窮親故，急煎煎覓不見個荒村務。我身上衣又單，腹中食又無，可甚麼“書中自有千鍾粟”？(旦兒云)秀才，似這般身上單寒，肚中饑餓，如之奈何？(正末唱)沒來由下這死工夫。

로 멀고도 험한 길을 강제당해야 했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기상학적 현상과 蒙元帝國의 역사적 현실을 텍스트 내부에 깊숙이 각인시키고 있다.

온화한 농경 지대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주인공이 이민족의 거점으로 찾아가야 하는 비참한 현실은, 그 자체로 구조적 왜곡을 보여준다. 더욱이 지배층이 태생적 기후에 맞는 북방의 大都에 수도를 정한 탓에, 漢人 지식인은 입신양명을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한파와 눈보라라는 재난까지 감내해야 했다. “책 속에 천 종의 곡식이 절로 난다”는 믿음으로 평생을 바쳐 쌓은 학문 역시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는 무력할 뿐임을 비통하게 깨닫게 된다. 정치적 박탈감에 가혹한 기후의 폭력성이 더해지는 이중의 고통은 주인공의 실존적 균열을 극대화하며, 눈보라 치는 상경길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무대로 변모한다.

결국 郭成의 고난에 찬 상경길은 기후 재난과 이민족 지배라는 이중의 압박에 신음하는 漢人의 비극적 운명을 상징한다. 작품은 눈보라 속에서 고통받는 郭成의 모습을 통해 혹독한 자연현상 이면에 도사린 구조적 불평등을 날카롭게 고발한다. 이처럼 눈보라는 몽골 권문세가인 龐衙內에게 유희의 기회이자 태생적 익숙함의 표지가 되는 반면, 한인 유생인 郭成에게는 참담한 좌절과 생존의 위기를 안겨주는 재앙의 기호로 작용한다. 결국 눈보라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양자의 민족성과 처지를 극명하게 가르는 감각적 표지이자, 폭력적 지배 질서의 실상을 폭로하는 강력한 은유로 기능하며, 元代 漢人 문인들이 마주한 시대적 위기의식을 증언하는 결정적 장치가 된다.

Ⅲ. 다민족 사회의 은유로서의 주막

1. 예사롭지 않은 주막

주막은 서로 다른 인물을 한 곳으로 밀집시키는 미시적인 공간이다. 몽

골제국이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광범위한 제국 전역에서 인적·물적 이동이 급증하였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驛站 제도의 발전과 함께 숙박 시설인 주막 또한 늘어났다. 이러한 거시적 이동의 활성화는 다양한 민족을 中原 내부로 유입시켰고, 결과적으로 주막은 각양각색의 인종과 계층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민족·다문화적 접촉의 장이자 축소판이 되었다.

店小二는 자신의 주막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丑이 店小二로 분하여 등장, 詩를 읊는다.)

점소이: (詩) 휘굽은 깃대 위에 짚단을 걸고,
푸른 버드나무 그늘에서 비파를 타네.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냥 지나치리,
이곳은 예사로운 주막과는 다르다오.
저는 술 파는 店小二올시다. 오늘 바람도 불고 눈도 거세게 몰아
치니, 틀림없이 추위를 녹이려 술을 사러 올 사람들이 있겠지요.
어서 주막 문을 열고 술 끓이는 술단지를 뜨겁게 달구고, 어떤 사
람들이 찾아올지 어디 한번 볼까요?¹¹⁾ (第1折)

店小二는 눈보라가 내리는 날씨를 위협이나 불운으로 인식하지 않고, 추위를 녹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元代 상공업의 발전과 함께 급부상한 상공인의 능동적이고 실리적인 경제 관념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비록 작품 속에 店小二를 色目人이라고 단정하는 명확한 물증은 부족하지만, 元代에는 많은 色目인들이 주막의 운영에 관여한 기록이 확인된다.¹²⁾ 나아가 元代 사회를 구성하던

11) (丑扮店小二上, 詩云) 曲律竿頭懸草褥, 綠楊影裏撥琵琶. 高陽公子休空過, 不比尋常賣酒家. 自家是個賣酒的. 今日風又大雪又緊, 少不少的也要買酒蕩寒的. 我開開這酒鋪, 燒的這鑊兒熱, 看有甚麼人來?

12) 元代에는 色目人 집단이 주막의 운영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元史》〈食貨志〉에 色目인들이 酒稅 징수 및 酒店 운영에 관여한 기록이 확인된다. 《老乞大》에는 시골 주점에서 상인이 위조 화폐로 술값을 지불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대목이 등장하며, 色目인이 상업 활동에 종사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元雜劇 《鄭孔目風雪酷寒亭》에도 回回族 관원인 馬合麻沙의 하인 張保가 鄭

다양한 민족적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그의 모습은 몽골의 남하와 함께 中原에 유입되어 특유의 상업적 기질을 발휘하던 色目人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店小二가 손님이 방문하기도 전에 “술단지를 뜨겁게 끓이는(燒的這旋鍋兒熱)”¹³⁾ 행위는, 단순히 술을 데우는 차원을 넘어 당시 유행하던 증류주를 제조하는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당시 아랍·이슬람 문화권의 아라크(Araq)에서 기원한 증류주는 몽골제국의 팽창과 함께 中原으로 유입되었고, 혹한의 기후 조건 속에서 순간적으로 체온을 끌어올리는 독한 술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소비하기의 생태적 환경은 증류주를 제조하고 소비하게 만든 실질적인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곳은 여느 예사로운 주막과 다르다”는 店小二의 증언처럼, 이 주막은 전통적인 재래식 주류를 다루는 공간이 아니라 외래에서 유입된 주종을 취급하는 이질적이고 독특한 성격의 공간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주막은 서로 다른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 갈등이 표면화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권세가 龐衙內 일행이 주막의 술을 거부한 채 자신이 가져온 술을 마시며 店小二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자, 店小二 역시 그들의 독단적 태도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지배층의 배타적 행위로 인해 당대 사회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주막은 다양한 인물을 한곳으로 집결시키는 만남과 갈등의 장으로서, 몽골의 침입과 영토 확장으로 인해 中原으로 유입된 여러 민족이 얹혀 살아가야 했던 元代 사회의 압축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州에서 주막을 여는 장면이 등장한다.

- 13) 여기서 ‘燒’는 ‘燒酒’를 만드는 기술의 본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元代 문헌에서 소주는 ‘燒酎’ 또는 ‘燒酒’로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燒’는 곡식으로 빻은 밀술을 가마에 넣고 불로 강하게 가열하여 알코올 기체를 피어 올리는 ‘증류(燒)’의 공정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술단지를 뜨겁게 달군다는 표현은 소주를 내리기 위해 가마술을 펄펄 끓여 알코올을 기화시키는 증류주의 핵심 제조 공정인 ‘燒’의 현장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신이 가져온 술을 고집하는 龐衙內

龐衙內 일행은 눈보라 속에서 사냥을 마치고 店小二의 주막으로 들어온다. 따뜻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차려입은 이들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이 장비한 가죽옷과 사냥이라는 행위는 북방 이민족으로서의 본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농경 사회의 규범과 중국식 예법에 포섭되지 않는 야생적 활력과 차별성을 상징한다.

주막에 입장한 일행은 곧바로 거만함과 폭력성을 드러낸다. 龐衙內的 부하들은 店小二가 자신들을 즉각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든다. 店小二는 곧 郭成 부부에게 다가와 “저 양반은 권문세가 龐衙內인데 사람을 때려죽여도 목숨값을 치르지 않습니다”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모습은 ‘衙內’라는 신분이 지닌 무소불위의 특권의식과 폭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龐衙內 일당이 피지배층을 상대로 일삼던 무자비한 폭력은 이처럼 당대 지배 구조 속에서 자행되던 몽골인 지배층의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폭력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폭력성은 물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주막이라는 공간의 침탈로 이어진다.

방아내: 아그야, 너도 복이 있구나. 내가 네 집으로 한달음에 넘어 들어오는 바람에 너희 집안 조상 九代가 모두 극락왕생하겠구나. 네 술은 마시지 않겠다. 아그들아, 내 술을 부어서 저에게 주어라.

수행원: 술 여기 있습니다.

(점소이가 술을 마신다)

방아내: 내 이 술이 네 술과 비교하면 어떠하느냐?

점소이: (미간을 찌푸리며) 이 술은 우리 집 술보다 훨씬 시큼합니다.¹⁴⁾

(第1折)

14) (衙內云) 我兒, 你也有福. 我一腳躡過你家來, 你家裏九祖都生天哩. 我不吃你那酒. 小的每, 釀我的酒來與他吃. (隨從云) 有酒. (店小二吃酒科.) (衙內云) 我這酒比你的酒如何? (店小二做嘴臉科, 云) 這酒比我家的越酸了.

龐衙內가 “내가 너희 집으로 한달음에 넘어 들어왔다(我一腳蹣過你家來)”고 내뱉는 대사는 이러한 침탈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蹣’ 자는 하부의 ‘馬’ 자와 결합하여 단순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넘어 ‘말을 타고 거칠게 뛰어넘다’라는 역동적이고 무력적인 감각을 전달한다. 몽골인에게 말이 군사적 팽창의 주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표현은 몽골의 폭력적 영역 확장과 中原 침입의 궤적을 미시적 언어 속에 투영한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주막이라는 타인의 장소에 진입해서도 店小二가 판매하는 술을 거부하고 자신이 가져온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店小二에게도 마시도록 강요한다. 店小二가 미간을 찌푸리며 시름하다고 평가한 이 술은 유목 생활의 소산인 馬乳酒, 즉 ‘아이락(Airag)’으로 추정된다. 가축 부대에 넣고 발효시켜 만든 시큼한 맛이 나는 이 술은 中原의 보편적 주류 문화와 섞이지 않으려는 몽골인의 배타적 자문화의 표상이다. 龐衙內는 신맛이 나는 馬乳酒를 타인의 공간에까지 반입해 소비하고 이를 店小二에게까지 맛보게 함으로써, 다른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지배자의 풍속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店小二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타인이 영업하는 주막에서 자신이 가져온 술을 고집하는 龐衙內 일행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하다. 작자는 눈보라 속에서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냥을 즐기고 주막으로 들어와 신맛 나는 술을 고집하는 이들의 행태를 통해, 소빙기의 도래와 함께 북방에서 中原으로 침입하여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피지배층의 공간을 침탈하며 군림하는 몽골 지배 체제의 폭력성과 이질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3. 龐衙內에게 청탁하는 郭成

눈보라 속에서 사냥을 마치고 주막에 들어온 龐衙內 일행이 주막에서 판매하는 술을 거부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져온 술을 고집한 것과는 달리, 郭成은 눈보라를 피해 주막에 들어온 후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하고 술을 사서 마신다.

郭成이 주막에 들어와 주막에서 판매하는 술을 마시고 店小二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행위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 지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郭成의 고향인 河中府는 元의 침입 이전 女眞族이 세운 金의 영토에 속했다. 女眞族 역시 본래 북방의 이방인이었으나 中原에 들어온 이후 중국의 통치 체도를 수용하고 정착하였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던 漢人들은 이방인 왕조의 통치 체제와 그로 인한 이질적 문화 및 이민족의 유입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온 漢人들은 이민족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회 질서 안에서 낯선 문화를 수용하고 순응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며, 이는 곧 北宋의 유민이 金과 元의 침략을 차례로 겪으며 감내한 생존 양상을 여실히 반영한다.

郭成은 주막을 찾아온 龐衙內를 보고 그가 권문세가임을 알아차린 뒤, 아버지가 물려준 가보인 生金閣을 바치고 청탁하기로 마음먹는다. 郭成이 이민족 권세가에게 가보를 바치며 청탁해야 하는 상황은, 元代에 들어와 漢人 지식인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관로로 진출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元代는 전통적인 중국식 과거제를 오랫동안 폐지하였다. 초기에는 과거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고, 몽골제국의 제5대 카한이자 元의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 칸(世祖) 사후 한참이 지난 1315년(延祐 2년)에야 비로소 부활했다.

이때 부활한 과거제조차 응시자와 합격 기준에서 철저한 민족 차별적 구조를 띠었다. 元에는 四等人制가 존재했고, 과거시험의 합격 정원 배분과 시험 난이도 역시 이 신분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응시 인원의 규모나 출제 난이도, 채점 기준 등에서 몽골인과 色目人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혜가 주어졌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유교 경전 학습과 문장력에 의존해 온 순수 漢人 문인들이 정석적인 과거 급제를 통해 고위 관직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郭成이 가보를 바쳐서라도 권력자에게 청탁해야 하는 사태는, 권력을 상실하고 절망적인 체제 아래 내몰린 漢人 지식인의 처지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龐衙內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기 급급한 것과 달리 郭成이 먼저 접견을 청한 점을 기이하게 여기며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한다. 이에 郭成은 작은 벼슬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다.

곽 성: (唱) 소생은 그저 작은 입신양명을 꿈꾸며 수도에 왔을 뿐이니,
명예를 얻어 몇몇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방아내: 보아하니 보아하니 이놈의 문장 솜씨로도 별 뽕족한 수가 없는지 오직 저 보물 하나만 믿고 벼슬아치가 되려 하는구나. 이 유생아, 내가 벼슬을 하려 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다. 내가 과거시험 감독관에게 말하여 큰 벼슬 하나 하게 해주마. 아그들아, 편지 한 장 써서 감독관에게 부쳐라. 내가 말했다 하고 그가 말을 벼슬 하나 내어주도록 하라.

곽 성: 어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생에게 못한 부인이 있사오니 부인더러 어르신께 절하며 감사드리라 하겠사옵니다.

방아내: 네 마누라가 나를 보려 하다니, 잘못되면 어찌려고? 그렇다면 네 체면을 봐서 이리 오라 하라.

곽 성: (아내 이유노에게) 부인, 내가 저 보물을 바쳤더니 어른께서 나에게 벼슬을 허락하셨소. 이리 와서 체면을 차려 어른께 절을 올리게나.¹⁵⁾ (第1折)

郭成이 미관말직이라도 얻기 위해 家寶를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내까지 불러내어 龐衙內에게 절을 올리게 하는 행위는, 정당한 관료가 차단된 상황에서 가족의 존재마저 이민족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야 했던 피지배층 漢人의 처지를 반영한다.

15) (正末唱) 小生只博個小前程來帝里, 便也好將名分入鄉閭。(衙內云) 料著這廝的文章, 也不濟事, 則憑著那件寶貝, 要做個官。兀那秀才, 你則要做官, 這個也不打緊。我與今場貢主說了, 大大的與你個官做。小的每, 便寫個帖兒, 寄與今場貢主去。說是我說來, 就搯一個官兒與他做。(正末云) 多謝了大人。小生有一個醜渾家, 著他拜謝大人。(衙內云) 你的渾家, 要來見我, 敢不中麼? 既是這等, 看你的面皮, 著他過來。(正末做向旦兒科, 云) 大嫂, 我將那寶貝獻了, 大人許我一個官也。你過去, 把體面拜謝大人者。

Ⅳ. 눈보라 치는 주막에서의 조우가 불러온 비극

1. 家寶 生金閣의 헌납

눈보라를 피해 주막으로 들어왔다가 권문세가 龐衙內를 만난 郭成은 그에게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家寶 生金閣’을 바치기로 한다. 누각의 형상을 지닌 生金閣은 바람이 불거나 부채를 부치면 仙音이 울려 퍼지는 진귀한 보물이다. 이 生金閣이 지닌 함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北宋과 金の 유산이자 문물에 대한 표상이다. ‘生金閣’이라는 명칭과 그 유산적 가치는 단순히 한 가문의 보물을 넘어, 華北 유역을 터전으로 삼았던 北宋과 金の 유산이자 문물을 상징한다. 華北은 오랜 세월 동안 北宋과 金の 문화적 정수가 축적되어 온 중심지였으며, 누각 형상의 生金閣은 바로 이 華北 유역의 유구한 문화적 성취를 집약한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郭成의 고향인 河中府는 몽골 침입 이전 北宋과 金の 영토에 속했다. 金の 멸망(1234년) 17년 후인 1251년에 武漢臣이 생존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작자 역시 金과 元의 교체기를 거친 유민의 시선에서 이러한 역사적 공간을 체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金은 비록 女眞族이 세운 정권이었으나 中原 통치 이후 전통적 통치 질서와 문화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몽골제국의 가혹한 문화적 수탈과 차별 체제에 직면한 元代 지식인들에게 金代의 문화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유산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으며, ‘生金閣’이라는 명칭에는 이 지역이 품어온 문화적 정통성과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北宋과 金の 토양에서 피어난 漢人 예술의 상징이다. 金代에는 《西廂記》의 원형이 되는 董解元의 《西廂記諸宮調》가 탄생하는 등 元雜劇의 직계 전신인 諸宮調가 활발히 발달했다. 부채질이라는 연행적 행위를 통해 仙音을 울리는 生金閣의 기제는, 배우의 신체 동작(科)과 노래(唱)로

비로소 무대 위에서 생명을 얻는 雜劇의 연극적 속성을 그대로 표상한다. 元代 몽골인의 침략으로 인해 관료가 막힌 상황에서 지식인은 자신의 학문과 문장을 무대 위의 소리와 노래, 즉 戲曲 창작이라는 대중적 연행 예술로 우회시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生金閣이 내는 소리는 작가가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문학적 혼이자, 연극을 통해 시대를 증언하고자 했던 예술가의 욕성 그 자체였다.

당대 漢人 지식인들은 평생 쌓아온 학문적 소양과 유학적 가치관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채, 이를 지배층에게 바치거나 환원해야만 겨우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처지에 내몰렸다. 生金閣을 바쳐서라도 관직을 구걸해야 했던 郭成의 행위는, 문명적 자부심을 지닌 漢人 문인들이 이민족 지배 체제 안에서 강제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유산까지 혈값에 상납해야 했던 시대적 수탈의 명백한 표상이다. 결과적으로 郭成이 生金閣을 상납하는 서사는, 元代 몽골 지배 체제 하에서 정당한 관직 진출의 길이 좌절된 작자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2. 아내 李幼奴의 약탈

龐衙內는 生金閣을 받은 후 관직을 준다는 구실로 郭成 부부를 사택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다. 그의 초청은 문명적 예우의 외피를 두르고 있으나, 그 실상은 여성을 포획하기 위한 폭력적 의례에 불과하다. 그는 수종을 시켜 大廳을 치우고 명인의 書畫를 걸고 방을 꾸미도록 한다.

龐衙內: 아그들아, 앞뒤 大廳을 치우고, 대가의 書畫를 걸고, 아끼던 그릇을 차려놓고, 금주전자에 따뜻한 술을 붓고, 비단 요와 수놓은 이불을 깔고, 잔대와 잔을 가져오고, 저 유생을 모셔오너라.¹⁶⁾ (第2折)

16) (衙內同隨從再上, 云:) 小的每, 打掃前後廳堂, 把那名人書畫, 掛將起來, 擺上那玩好器皿, 著金壺裏釀著熱酒, 鋪開那錦裯繡褥, 將好臺盞來, 請過那秀才來者.

龐衙內가 자신의 공간을 中原의 문명으로 채우는 행위는 단순한 환대의 몸짓이 아니라, 郭成을 방심하게 만들어 포섭하기 위해 치밀하게 놓아둔 문화적 덫에 가깝다. 이는 정복자 스스로의 내면적·문화적 공백을 피지배층의 고유한 문물로 치장해 은폐하는 동시에, 강탈한 전리품 과시를 통해 권력의 위계를 각인시키는 고도의 기만술이다. 사냥꾼이 맹수를 유인하기 위해 익숙한 먹이로 덫을 설치하듯, 그 역시 중원의 화려한 예술과 기물을 매개로 한인 지식인을 안심시킨 뒤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치밀한 포획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금주전자에 따뜻한 술을 부어 환대하는 척 가장하지만, 곧이어 郭成의 아내 李幼奴를 빼앗아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 郭成에게는 다른 여자를 얻어주겠다는 파렴치한 요구를 거침없이 드러낸다. 龐衙內가 타인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겠다고 공언하는 행태는, 유목 사회의 전통적 혼인 습속 가운데 하나였던 여성 포획 즉 勒婚의 단면을 환기한다. 여성이 부족하고 생존 자원이 곧 인구와 직결되는 유목 사회에서 부인의 교환과 약탈은 지배층의 대표적인 권력 과시 방식이었다. 《몽골비사》에 나타나는 勒婚의 사례처럼, 타인의 아내나 가족을 임의로 취하는 행위는 유목 사회의 오랜 관행과 직결되어 있다. 이처럼 작자는 대가로부터 강탈한 서화라는 화려한 문명의 외피 뒤에 숨겨진 몽골인의 거칠고 원초적인 유목적 습속, 즉 타인의 천륜과 가정마저 자신의 소유물로 전유하려는 폭력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郭成은 龐衙內에게 “당신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어찌 이리 마음보는 흉측하단 말인가. 기껏 남편과 아내의 인연을 갈라놓고, 짝 잃은 봉황과 외톨이 원앙 신세로 만들다니(你原来好模样倒有这般心歹处, 便待要拆散妻夫, 鳳隻鸞孤.)”라고 외친다. 郭成의 부르짖음처럼 龐衙內의 행태는 부부의 인연을 갈라놓는 천륜의 파괴이자, 漢人 사회가 유지해 온 최소한의 풍속과 윤리적 질서를 유린하는 폭거이다. 龐衙內의 강요 앞에 郭成은 공포로 맥이 풀린 채 자신의 아내를 못한 여인이라며 비루하게 자조하고 호소하지만, 龐衙內는 郭成의 옷깃을 거머쥐고 아내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

겠다고 협박한다.

곽 성: 아이고, 어찌하여 나란히 핀 한 쌍의 연꽃을, 이다지도 가혹하게
뿌리째 뽑아버린단 말인가! 이리되면 늙고 병든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는 뉘라서 봉양한단 말인가!¹⁷⁾ (第2折)

아내를 빼앗는 龐衙內的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치정이나 삼각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늙고 무력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孝의 파괴로 이어진다. 즉, 이 사건은 이민족 지배층에 의해 漢人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와 가족 공동체가 근본부터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내의 강탈과 부양의 단절은 가정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들며, 사회를 지탱하던 가부장제의 뿌리가 통째로 허물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3. 沒頭鬼가 된 郭成

龐衙內는 李幼奴를 빼앗기 위해 郭成을 창고에 가둔 후 斬首하고, 머리가 잘린 郭成은 자신의 머리를 들고 담을 넘어 도망치게 된다. 沒頭鬼가 된 郭成의 기괴한 형상은 元代 漢人 지식인이 마주한 실존적 절망의 극치다.

沒頭鬼는 ‘머리가 있어도 쓸모가 없는’ 상태, 즉 머리에 채워진 방대한 유학적 지식과 문학적 역량을 현실 정치나 사회에서 발휘할 수 없는 漢人 지식인의 무력한 처지를 상징한다. 평생을 바쳐 머릿속에 채운 공부와 경륜은 지배층의 무력 앞에서 아무런 방어막도 되지 못한다. 沒頭鬼의 비극은 지배 세력에 의해 지식과 언어가 강탈당하고 정치적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채 경계인으로 떠도는 漢人 지식인 계층의 근원적 소외와 공동체적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증언한다.

눈 내리는 날 주막에서 우연히 마주친 털옷 차림의 사냥꾼이자 권세가

17) 哎, 不爭將並頭蓮蓂可可的帶根除, 着誰人養活俺那生身父.

龐衙內 일행의 행태는 결국 북방 이민족이 중원에 진입하여 저지른 수탈의 본질을 상징한다. 이들은 혹한 속에서 털옷으로 무장하고 사냥이라는 유희를 즐기며 중원의 영토를 유린했고, 나아가 漢人 남성의 목숨과 그의 아내까지 무자비하게 빼앗았다.

눈보라 치는 주막이라는 경제적 공간에서의 이 만남은, 소빙하기라는 기후위기 속에서 중원으로 침입한 이방인 정복자가 漢人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는 비극적 전환점이다. 즉, 혹독한 자연의 재난과 이민족의 침탈이 교차하는 이 조우는, 漢人 지식인의 문화와 생명, 가정까지 철저히 해체시킨 元代 지배 체제의 야만성을 고발하는 강력한 문학적 은유의 정점으로 기능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소빙하기의 도래가 북방 이민족인 몽골인의 남하를 촉발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국면이 元代 鬼神劇에 깊이 투영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武漢臣의 《生金閣》을 분석하였다.

작품 속 눈보라는 단순한 계절적 배경을 넘어 소빙하기의 환경사적 징후이자 북방 민족의 남하를 이끈 거시적 동인의 문학적 표상이다. 작자는 눈보라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냥을 즐기는 龐衙內를 통해 북방 이민족의 추위에 대한 내성과 호전성을 형상화하였고, 눈보라 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郭成의 모습을 통해 온난한 定住 환경에 익숙한 漢人의 취약성을 대비시켰다. 이처럼 기후적 환경에 대한 대처 양상을 인물 설정의 축으로 삼은 것은, 지배층을 직접 비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가가 구사한 치밀한 문학적 우회 전략이다.

작품 속 주막은 몽골의 침략을 통해 中原으로 유입된 여러 민족이 공존해야 했던 元代 사회의 축소판이다. 눈보라는 이질적인 인물들을 주막이라

는 미시적 공간으로 강제 병합하는 촉매제로 기능하며, 龐衙內 일행이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는 태도는 지배자의 배타적 속성을 반영한다. 이민족 지배 구조 속에서 권세가에게 청탁해야만 하는 郭成의 처지는 하층민으로 전락한 漢人의 실존적 단면을 여실히 증명한다.

결국 눈보라 치는 주막에서의 만남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과국적 조우이자, 郭成이 마주한 실존적 절망의 도화선이 된다. 과거제의 실질적 폐지로 관료가 차단된 지식인이 가보인 生金閣을 상납하고도 아내를 약탈당하며, 마침내 沒頭鬼로 전락하는 일련의 서사는 지배 체제가 가한 전방위적 수탈의 결과이다. 이는 환경적 위기와 이민족의 지배라는 역사적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漢人 지식인 계층이 겪은 공동체적 트라우마의 극치를 보여준다.

요컨대 《生金閣》은 초자연적 소재를 다룬 단순한 귀신극을 넘어, 환경적 위기와 이민족의 수탈이 중첩된 元代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는 고발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 臧懋循, 《元曲選》, 北京: 中華書局, 2021.
- 유원수, 《몽골비사》, 서울: 사계절, 2004.
- 브라이언 페이지 지음, 윤성옥 옮김, 《기후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서울: 중심, 2002.
- 브루스 M. S. 캠벨, 박홍식, 노의근 옮김, 《대전환: 중세 말 세계에서의 기후, 질병, 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현 옮김,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 서울: 너머북스, 2014.
- 김문기, 〈‘중세온난기’에서 ‘소빙하기’로 - 14세기 동아시아의 기후변동〉,

《한국생태환경사학회 생태환경과 역사》 13, 2024.

이사하야 요이치, 〈기후변화가 제국을 흔들었을까? - 1270-80년대 몽골 사례 연구〉. 《생태환경과 역사》 10, 2023.

Brook T. "NINE SLOUGHS: PROFILING THE CLIMATE HISTORY OF THE YUAN AND MING DYNASTIES, 1260-1644", *Journal of Chinese History* 2017;1(1), 2017.

이지은, 〈《生金閣》 龐衙内の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고찰 - 눈(雪)을 통해 드러나는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 《중국학논총》 90집, 2025.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Little Ice Age of the thirteenth century catalyzed nomadic southward expansion and the resulting multi-ethnic convergence in Yuan dynasty drama, focusing on Wuhanchen's ghost play *Shengjinge* 生金閣. To bypass strict political censorship, the playwright employed meteorological snow and a confined tavern as indirect mediums to critique Mongol subjugation. First, the snow functions as an environmental signifier of the Little Ice Age, contrasting the ecological adaptability of the nomadic elite, who enjoy hunting in the storm, with the severe vulnerability of the Han protagonist, Guo Cheng. Second, the snow-sealed tavern operates as a microcosm of Yuan multi-ethnic society, highlighting the structural hierarchy and cultural friction between the dominant rulers and the marginalized Han. Third, the extortion of the heirloom *Shengjinge*, the plunder of Guo Cheng's wife, and his tragic transformation into a headless ghost vividly dramatize the communal trauma of Han literati whose Confucian aspirations were

incapacitated by systemic dispossession and the aboli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Ultimately, *Shengjing* functions as an insightful indictment where environmental disaster and alien domination intersect.

Key Words : 소빙하기(Little Ice Age), 원잡극(Yuan zaju), 生金閣(Shengjing), 눈보라 모티프(snowstorm motif), 주막 모티프(tavern motif), 기후 재난(climate disaster), 귀신극(ghost play), 몰두귀(headless ghost)